

# 시행 한달 반 장애인 바우처택시... 이용객 불편 속출

### 임차택시 폐지 후 250대 약속 실제 182대 운행... "예산 부족" 택시 기사들 장애 이해 낮고 탑승 늦었다고 현장 취소도 이동센터 "민원시 적극 조치"

임차택시 폐지 후 비활체어 장애인의 유일한 이동 수단이 된 '바우처택시'가 되려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당초 예정됐던 수량이 확보되지 않은 데다 일부 기사들의 낮은 장애 이해도로 인해 장애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19일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센터) 등에 따르면 바우처택시는 비활체어 장애인 전용 택시로, 지난해 임차택시가 폐지된 후 올해 확대 운영됐다.

센터는 지난해까지 비활체어 장애인을 대상으로 임차택시 89대와 바우처택시 100대를 운영해왔는데, 임차택시 기사 퇴직금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서 임

차택시를 폐지했다. 대신 올해부터 바우처택시를 250대로 증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까지 센터가 확보한 바우처택시는 182대뿐이다. 기사 개인 사정, 연차 등으로 당일 운행이 불가능한 사례를 제하면 실제로 이용 가능한 택시는 하루 평균 150대가량에 불과하다.

이는 센터 측이 바우처택시를 도입할 당시와 상반되는 상황이다. 앞서 센터는 임차택시 폐지에 대한 반발을 없애고자 '바우처택시 증차로 대기 시간이 감소할 것'이라고 장애인들을 설득했다.

그러나 시행 한 달 반이 넘어가는 현재까지 약속 수량을 확보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기사 교육까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자 센터는 지난 1일에서야 나머지 70대에 대한 추가모집 공고를 올렸다. 센터는 모집·심사를 거쳐 오는 3월께 추가 모집 택시에 대한 계약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센터 측은 약속했던 차량 수를 확보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바우처택시는 한 달 300콜 이상 수행 시 1콜당 3000원의 인센티브를 주는 구조로 운영되는데, 한 번에 많은 택시를 모집하면 예산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천천히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는 한 장애인은 "학교방학이 끝나는 3월부터는 장애인 콜이 잡히지 않을 것 같으니 최대한 미루다 올해 겨자먹기식으로 증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장애인 콜만 수행하는 임차택시와 달리, 바우처택시는 일반 영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서비스 질이 악화됐다는 불만도 거세다.

시각장애인 김모(43)씨는 "얼마 전 바우처 택시를 불렀는데 택시 기사가 '여기요, 여기요'하며 답답하다는 듯 택시 쪽으로 오라고 재촉했다. 시각장애인은 어디서 부르는지 알 수 없고, 설명 방향이 가능하더라도 앞에 무슨 장애물이 있는지 몰

라 선뜻 받을 뻔 수 없다. 내릴 때도 목적지가 아닌 인근 큰 도로에서 내려 주는 일이 많다"면서 "임차택시 기사들은 직접 손을 잡고 탑승을 도와줬는데, 바우처 택시 기사는 장애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이 안 돼 있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기사들이 '현장 취소'하는 일도 종종 발생했다. 배차 시간이 들뜰날짜한 탓에 이용객들은 미리 택시를 부르는데, 예상치 못하게 택시가 빨리 잡힐 경우 기사가 '이용객이 미리 출발지에 나와 있지 않았다'며 현장 취소를 하는 것이다.

김씨는 "장애인들은 아무리 서둘러도 비장애인보다 탑승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그때마다 기사한테 '이렇게 늦게 나오면 현장 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하고 큰 소리를 듣기도 한다"며 "임차택시는 10분의 의무대기 시간이 있었는데, 바우처 택시로 바뀐 후 여유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시각장애인인 "벽을 더듬더듬 짚으며 천천히 나오니 바

로 앞에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바우처 택시 기사가 '시각장애인인데?'하고 "뺨"가 버렸다. 어이없이 현장 취소를 당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더욱이 현장 취소에 대한 불이익은 이용객에게만 적용돼 논란이 있다.

센터는 '월 3회 이상 현장 취소 시 일주일간 이용 정지'라는 규칙을 정하고 있다. 본인 의사와 관계 없이 현장 취소당한 이용객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모습이다.

장애 감수성에 대해서도 센터가 직접 운영하는 택시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센터 관계자는 "바우처택시 기사들의 경우 승·하차 안내 측면에서 관리가 잘 안 되는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센터와 계약을 맺을 뿐 (센터가 바우처택시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장애 인식 교육 등을 하기 어렵다. 다만 민원이 발생하면 해당 차량 기사에게 직접 전화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

## 같은 병원 일했던 동료 스토킹한 70대 전직 약사 집유

같은 병원에서 일했던 간호조무사를 집요하게 쫓아다니던 70대 전직 약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 됐다.

19일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이지영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약사 A(7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 사이 42차례에 걸쳐 50대 간호조무사 B씨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만남·대화를 요구하거나 연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퇴근을 기다리고 있다가 B씨의 손을 붙잡고 대화를 요구하거나 주거지를 찾아갔다. 또 불안감을 호소하는 B씨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연락해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가 같은 병원에서 일했던 B씨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을 줬 죄책이 무거운 점,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 범죄의 사회적 피해가 큰 점, A씨가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A씨가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성현 기자**

## 고흥서 규모 2.5 지진 발생

고흥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했다. 19일 광주기상청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29분께 고흥군 북동쪽 11km 지역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감지됐다. 진앙은 고흥군 점암면 연봉리로 북위

34.67도·동경 127.36도다. 지진 발생 깊이는 8km다.

소방 당국은 '흔들림을 느꼈다'는 주민들의 신고는 일부 접수됐지만, 현재까지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지난 13일에도 고흥에서 규모 1.9의 지진이 발생한 바 있다. **강주비 기자**



"조합장 선거 투표하세요" 전남도선관위 직원들이 휴일인 19일 담양 메타프로방스에서 오는 3월8일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관광객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투표 참여와 깨끗한 선거를 홍보하고 있다. **김양배 기자**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돈** 빌려준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받아 드립니다**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못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10-5679-0990, 062)714-2846**

**풍수사주 수강생 수시모집 및 상담**

**명당(穴)을 만드는 풍수!**  
주택,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강 (6개월 과정)**  
· 일 시: 2023. 3. 8 (수) 오후7시  
· 장 소: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 478-1) (산수오거리→무등산방향입구 우측2층)  
· 수강료: 풍수+사주 20만원 (매월)

**공개강좌 (무료)**  
· 일 시: 2023. 3. 1 (수) 오후7시.  
· 장 소: 상동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 대 상: 누구나 (선착순 00명)

**컨설팅 (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공개
- 기강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맥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 (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 (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 (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2246-1508

**광고문의**

팩스: 062)519-0709  
지통: 062)519-0710

全南日報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3-021호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나 관리자가 있을 경우 광주국토관리사무소 또는 해당 공사 현장사무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공고 기간 내에 신고자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 임의개장함을 공고합니다. 또한, 동일 지번 내에서 추가 발견되는 분묘도 본 공고에 갈음합니다.

공사명	분묘소재지	분묘기수	분묘번호	비고
국22 영광신천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전남 영광군 묘량면 신천리 산196-2	2	No.5 No.9	

1. 분묘의 소재지 및 장소

2. 개장사유: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시행 「국도22호선 영광신천지구 교차로 개선공사」에 편입

3. 개장 후 안치장소: 남골당

4. 개장 후 안치기간: 안치일로부터 10년

5. 공고기간: 2023. 2. 20. ~ 2023. 5. 23.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6. 개장방법: 사업시행자가 임의개장

※ 공고기간 중 연고자가 나타날 경우에는 연고자가 개장

7. 신고처  
- 광주국토관리사무소: 062) 970-6317, 시설안전관리과 062) 970-6355

2023. 2. 20.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드론타임**  
DRONE TIME

고퀄리티(4K) 저렴한 가격 드론 촬영 편집

스포츠촬영 / 축제 / 산업현장 / 호텔 / 펜션 학교 / 부동산광고 / 분양 / 지적도 선박특수촬영 / 생산시설 / 양식장 아파트 / 교회 웨딩 / 이벤트 / (웹)드라마 등

**드론타임 010-5681-8084**

**한정승인 공고**  
광주가정법원 심판

사건번호 2023-단3001 상속한정승인  
사망자 황순현(890121-\*)  
최후주소 광주 동구 남문로566길 1-2, 가동 103호(용산동, 남용연립)

위 망 황순현 상속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 제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하였으므로 민법 제1032조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23년 2월 20일

공고인: 황명선, 정점덕  
한정승인 수리일: 2023년 2월 15일  
공고기간: 2023. 2. 20. ~ 2023. 3. 19.